

녹색전환과 젠더

커먼즈로서의 젠더와 자연

박혜영 (인하대 교수)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 – 경제성장

- 정의로운 경제성장은 가능한가?
-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가능한가?
- 경제성장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가?

* 에코페미니즘: “우리는 썩은 파이를 똑같이 분배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

gynocide(가부장제)	=	genocide(식민주의)	=	ecocide(자본주의+과학기술)
여성		비서구, 토착민		자연
남성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androcentrism)		(Occidentalism)		(anthropocentrism)

ex) Maria Mies, Vandana Shiva, Veronika Bennholdt-Thomsen

-> 가부장제는 사적영역에서 사회(경제), 전지구적 영역으로 확장 (남성적 시스템의 보편화)

생태 위기는 왜 페미니즘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가?

- 환경파괴는 탈젠더적인 인류 보편적 이슈가 아닌가?
- 젠더적 (특히 여성 젠더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에코페미니즘은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여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을 강조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
 1.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논리의 반복
 2. 여성이라는 단일 범주화의 폭력성- 배제되는 타자들
 - > 본질주의 (essentialism)
생물학주의 (biologism)
- 포스트페미니즘의 젠더, 자연관과의 차이 (Judith Butler, Donna Haraway)

* 페미니즘의 고정관념(certainties)

* 토착 젠더의 특징:

- 젠더의 표식의 다양성
- 젠더는 개별적 행위라기 보다는 공통의 경험 (장소에 토대)
- 자급적, 자율적, 자치적 역사성

—“젠더는 두 다리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동거지마다 존재하는 것이다.” -Ivan Illich

- 경제성장은 토착 젠더의 파괴와 경제적 성(economic sex)의 착취로 가능한 것임
 - >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의 탄생
 - 섹스로밖에는 구별되지 않는 경제적 중성자(neutrum oeconomicum)를 성별로 구분한 것이 지금의 젠더임 (social sex)
 - > 여성의 경제적 차별과 종속의 기원

에코페미니즘의 젠더 담론

- 본질과 범주에 관한 딜레마

1. Karen Warren & Val Plumwood

- 여성과 자연은 동일한 인식론적 지배 논리에 의해 착취됨
- 남성은 보편적(universal), 인간, 정신 / 여성은 개별적(particular), 자연, 육체
- 생태위기는 이성 우위로 젠더화되어 있는 남성중심주의적 인식론이 원인
- 자연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됨
- 이분법적 우열관계에서 수평적 공감에 토대를 둔 '관계적 자아'의 윤리로 나아가야
- 본질주의는 관계적 특성으로 봐야

2. Maria Mies, Vandana Shiva

- 자본주의에 주목 (생태위기, 여성의 임파워먼트의 상실, 제3세계의 약탈)
- 가정주부화(housewifization) – 그림자 노동의 성별화된 의미로 씀
- 여성, 자연, 제3세계의 동일한 착취
- 경제적으로는 자유재, 정치적으로는 권리를 박탈당한 비시민
- 자급경제(subsistence economy)의 회복이 대안

3. New Ecofeminism: 에코페미니즘에서 새로운 관점 추구 – 기후변화 시대

- 본질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벗어나자
- Noel Sturgeon's global feminist environmental justice
- Greta Gaard's critical ecofeminism (queering)
- New materialism

“에코페미니즘이 여성에게 제시하는 처방전은 초월은 거부하고,
그 대신 자신의 몸을 껴안으며 어머니들과의 유대는 유지하고,
자기 지역의 에코시스템 속에 묻힌 채 자유나 자율과 같은 목표는 포기하고,
그저 식솔과 공동체를 돌보며 자급적 생산에 힘을 쏟으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보수주의로는 여성들이 임파워먼트를 회복할 수 없다.”

- Mary Mellor의 미즈 비판

- 자연으로부터의 탈주 – 자연과 젠더 모두 문화적 구성물로 탈자연화
- 탈주에는 자본과 과학기술이 필요함

젠더에서 섹슈얼리티로

- Judith Butler:

- 젠더의 기원은 자연이 아닌 문화
 - 젠더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으로 구성, ex) 사회규범, 법, 호명
 - 수행성 (performativity) \neq 수행 (performance): 수행은 주체성을 전제함
 - 몸을 규정하는 성차도 문화적 구성물임
 - ex) 에르퀼린 바르뱅 - 양성인간, 성적으로 하나인 정체성의 불가능성을 입증
 - '비정체성의 정치학', '차이의 정치학'
 - 개별화된 행위로만 구별된다는 점에서 젠더가 아닌 젠더링(gendering)
- > 미즈의 비판: 공통성(commonality) 없이 정치적 행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 > 견고한 물적, 현실적 토대 없는 개별적 행위로 자본주의에 저항할 방법은?

만일 어떤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용어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젠더화된 '사람'이 젠더의 특정한 고유장치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젠더는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담론적
으로 성립된 정체성의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성적, 지역적 양성들과 부단히 마주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젠더'를 정치적, 문화적 접점에서 분리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젠더는 늘 바로
그 접점에서 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이런 이론적 이동(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강단비평으로 이동한 것 지칭)으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복수(plurality)의 인간과 문화 그리고 이슈가 지니는 공통성과 연계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적 행동은 '정치적 올바름', '젠더', '인종', '문화', '성적 지향성', '민족성' 등을 단지 언어로만 열거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여성'이건, '모성'이건, 아니면 뭐든 간에 사회적 카테고리로 본질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이들은 젠더에 관한 담론으로 여성운동을 탈정치화하는데 기여하였다.”

(Maria Mies, *The Subsistence*의 버틀러 비판)

- > 미즈는 가부장적인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주의 모두를 비판
- > 성의 상품화와 자연의 상품화는 같이 일어남(Ivan illich)
- > 젠더와 자연 모두 공유재(커먼즈)로서의 특성을 상실하면서 시작됨

커먼즈의 중요성 & 커먼즈란?

- Common, commons. Commoning은 번역하기 어려운 영국의 전통문화임
- 비산업사회에서 민중들이 누리던 다양한 공유권과 그 권리의 행사, 그리고 그런 권리를 누리던 자유민을 지칭
- 켈트시절부터 시작된 영국의 오래된 관습적 전통
- 1215년의 러미니드 들판에서 존 왕이 사인한 두 개의 헌장
 - ex) 대헌장(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와 삼림헌장(Charter of Forest)
 - > 공유지에 대한 관습적인 경제적 권리를 왕이 공인해준 것임
 - > 두 개의 자유대헌장들(The Great Charters of Liberties pf England)
 - > 체포, 구금, 고문금지와 같은 자유민의 정치적, 법적 권리는
생계자급의 경제적 토대인 공유지의 사유화를 제한할 때 가능함
 - > 영국사에서 커먼즈의 의미 성찰해야,
ex) common wealth vs national wealth (Adam Smith)

Gender and Nature as Commons

-> 여성과 자연을 커먼즈의 문화에서 보면

에코페미니즘의 본질주의 한계 극복 & 대안 제시 가능함

- 영국 농민 전쟁의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 - 전통적인 복장도착(transvestism)의 힘
- 종획운동에서 공유지의 공통권을 지키려던 여성 젠더의 연대

ex) 길리엄 포레스트 반란(1626-28) - 레이디 스킴INGTON(Lady Skimington)

- 전통사회에서 복장도착(transvestism)의 정치적 힘
- 전통적인 복장도착은 집단적인 것으로 젠더의 경계를 재확인시켜주는 역할

ex) 카니발, 계절행사, 혹은 반란 -> 젠더는 처음부터 공유지의 사유화에 반대한 정치적 힘

“여성들이 공통권(common)을 보존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대담한 대장 도로시는 니더데일의 여성들을 이끌고 쏘프 무어의 종획에 맞섰다.

이삭줍기는 본격적인 추수가 끝난 후에 남은 이삭들을 줍는 오래된 관습이었다.

이 작업은 거의 여성들이 통제하였으며, 추수가 끝난 밭으로 갈 때 여성들의 지도자인 추수의 여왕이 행렬을 이끌었다.

1626-28년의 킬링엄 포레스트 반란은 여성들이 이끌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1627년 레스터 포레스트 반란을 지켜본 관찰자는 “몇 명의 무식한 여성들”이 그 반란을 이끌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1632년의 포레스트 오브딘 반란은 신비로운 인물인 레이디 스킴턴이 이끌었다.

브리스톨에서 대포를 가져왔는데 포수들은 얼버무려 넘기면서 대포를 발사하기를 거부했다. ”

- 피터 라인보우,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 버틀러의 드래그(drag)

- 버틀러는 드래그를 통해 젠더의 비본질성, 수행성, 유연성을 설명
- 버틀러는 패러디의 힘을 주장
- 젠더에 토대를 둔 이성애주의와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가족 개념 해체
- 젠더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메타포로 봄

-> 젠더적 가변성 때문에 자본과 상품화의 대상으로 전유되기 쉬움

젠더의 의미 – 장소성(구체적인 장소에 토대를 둔 것임을 인식해야)

- 전통적 의미의 젠더 – 몸의 물질성 + 구체적인 장소성
-> 자신이 태어난 세계에 붙박은 것임

ex) 한나 아렌트 – 장소성이 박탈당하면서 소유에서 사유로 전환된다고 봄

“원래 소유란 세계의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장소를 지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라는 정치 조직체에 소속되는 것, 즉 공적 영역을 함께 구성하는 한 가계의 가장이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적으로 소유된 이와 같은 세상의 일부분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한 시민의 추방이란 단순히 그가 지닌 재산의 몰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쳐 자체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뜻하였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 인간에게서 장소성을 박탈하는 것이 큰 처벌이었음 (거처 없는 인간)
ex)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 - 공동체로부터 추방
- 토착사회에서의 가정은 장소성의 토대
“a home is neither a nest nor a garage” - Ivan Illich
- 집과 식구들,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서로의 소유물에게 연결시킴(mutual belonging)
 - 도무스의 유지와 계승이 중요함
 - 토지는 도무스(domus)의 소유임(가문의 공유지)
ex) 호머의 <오디세이>: Odysseus & Penelope's bed

고대 그리스의 제니아(xenia) 문화 – 타자와의 관계

- 제니아 문화 :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 (비대칭성이 특징)
 낮선 타자에 대한 환대문화
 상호존중과 상호부조에 토대를 둠
- 제노스(xenos) : 손님, 이방인, 친구, 적, 외국인
 ex) 제노포비아(xenophobia)
- 종교적 윤리적 의무로서의 환대 : 신분을 모른 상태로 환대
 -> 문명과 야만의 차이
 ex) 오디세우스의 순례 -

구체적인 물질성, 장소성이 없는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장소성 없는 관계성으로 생태위기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 해러웨이 : 가부장제의 재생산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의 생산 신화를 비판

-> “자식 말고 친족을 만들자”(making kin, not babies)

- 이종적인 타자들과의 새로운 공생관계가 대안

- 지구타자들(Earth others)이 귀어한 친족 범주임

- 홀로세 멸종(Holocene extinction)에서 공생으로

-> 응답 능력이 책임 (response + ability)

“존중하고 응답하고 몇 번이고 돌아보고 환대하고 주의하고 정중히 행동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모두 예의바른 인사, 폴리스의 구성, 종과 종이 만날 때의 장소에 결부되어 있다.”

- “근접성 없는 친밀감” (intimacy without proximity)
 - 비인간 종과의 친족 맺기 :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 접촉 없는 접속의 시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장에 포섭
- 제3의 장소의 소멸: 코이노니아(koinonia)의 세계
 - 결사, 사교, 공동체의 장소
 - 민주주의의 토대
 - 젠더 공간
 - 우애의 장소
 - 커먼즈의 성격